

역겨운 죄인과 겸손한 죄인

성경말씀: 롬3:9-20

올해 들어 마태복음 백잡기, 산상수훈, 왕국 백성의 규범, 생활양식, 사고의 변화

종교를 벗어나야 한다. 종교인의 특징, 위선과 가식, 겉으로는 경건하고 보기 좋은데 안은 썩어 있다.
예수님의 판단: 세리 마태 사건, 마9:9-13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 남을 죄인이라고 경멸함,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경멸받는 그들을 구원하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역겨운 죄인과 겸손한 죄인>. 후자에 속해야 한다.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로마서

이방인들의 구원 지침서, 구원의 방법 1:16-17

복음: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16)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의(17), Righteousness

의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살 수 있다.

은 세상 정죄, 모든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다(18-32절).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하나님을 보여 준다. 디자이너 없이 어떻게 물건이 나오나?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21). 우상 숭배(23), 동성애(26-27),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28),

하나님도 방치함(28), 그 결과(29-31), 의를 얻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32).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얻는 것)이다. 의(義)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병이 있어야 의사 필요
의롭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한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수태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모두가 죄인이다(3장).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3:9).

1. 의로운 자는 단 하나도 없다(10). 그 결과 12-17

2.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19).

여호수아 시대 아간의 죄(바빌론 산 옷, 은과 금덩이를 장막에 숨김, 수7:21),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심판 날에 모든 사람의 죄를 물으신다(2:5, 16).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역겨운 죄인과 겸손한 죄인

역겨운 죄인: 모든 것을 판단한다. 지적질을 한다(2:1-2). 자기가 정죄하고는 그대로 그 일을 한다.

특히 유대인들(17-24), 교만이 보통이 아니다(17-20).

이렇게 자랑하고 다 안다고 빼기면서도 악한 일을 한다(21-24).

요9: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병 고침 받음, 주님의 교훈, 9:39, 바리새인들의 대답(40), 예수님의
대답(41), 이상한 일이 있다. 눈을 떴다고 하는 자들은 눈이 멀.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보기에 역겨운 죄인이다: 종교인, 위선과 가식에 휩싸인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 '내로남불', 이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겼으므로 예를 들기 쉬움
지난 주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 비리 사건, 1966년생, 서울대 인류학 학사, 참여 연대 출신,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말 그대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일생을 삶'

과거 행적: 1. 고액 강연, 2. 공금 남용, 3. 로비성 출장, 4 출장 중 관광, 5. 거짓 해명
2012년 5월부터 19대 국회의원, 국회의원 시절의 여러 비리가 드러남

1. 고액 강연= (2014년 10월 24일 국감에서 이정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민원 부서에 소속돼 있는
특정인이 어떤 특정한 기관을 상대로 반복해서 강연 요청을 받고 강연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 김 원장은 다음해 9월 자신이 소장자로 있는 더미래연구소에서 '미래리더 아카데미'라는 강좌
사업을 시작했다. 첫째 1기는 1인당 수강료가 350만원이었는데 이듬해 2기는 600만원으로 올렸
다. 연구소는 3년간 수강료로 2억 5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3기까지 운영된 이 아카데미는

- 장하성, 홍익표, 우상호 등 현 여권 좌익 인사들이 강사진으로 나서서 돈벌이. 조국 민정수석도
- ② 공금 남용= (2013년 10월 22일 국감에서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에게)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융합과 혁신을 통한 정관 협력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12,700원을 쓰셨어요. ... 이런 정도는 사비로 쓰셔야지 이것을 법인카드를 쓰시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 (* 커피값 12,700원을 문제 삼았던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자금에 ‘뺨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은 임기 만료와 함께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2016년 5월 29일) 직전인 5월 20일 여비서와 유럽 출장을 가는 데 정치후원금을 사용했다. 임기 종료 전 5개월 사이에 정치 후원금 3.7억원을 거의 다 소진함,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 후원(후에는 본인이 소장)
- ③ 로비성 출장 의혹= (2014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것 정당합니까?”
- (* 김 원장은 이 발언 앞뒤로 피감기관 예산으로 세 차례 출장을 다녀왔다.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지원(457만원)으로 2박3일 우즈베키스탄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480만원)으로 2박4일 중국·인도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3077만원)으로 9박10일 미국·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 등이다.
- ④ 출장 중 관광= (2014년 10월 8일 국감에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매년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냥 해외 관광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어요. ... 거의 스위스·프랑스·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가고 있습니다.”
- (* 김 원장은 7개월 후 KIEP 지원으로 9박10일 출장을 갔다. 출장 영수증에는 워털루 전쟁기념관(벨기에 브뤼셀)-콜로세움·바티칸대성당(이탈리아 로마)-몽블랑(프랑스 샤모니) 등 유명 관광지를 돌아본 기록이 남아 있다.
5. 인턴 여비서와 단 둘이 해외여행, 인턴 여비서, 9급에서 7급 초고속 승진(3년에서 6개월)
* 여비서는 여행 사진을 페이스북 SNS에 다 올림, 남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6. 거짓 해명 논란= (2014년 10월 15일 국감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지요. ...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물러날 생각을 안 한다.
- “김기식 등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잔인하리만치 원칙을 내세우며 대통령을 몰아붙였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공격한 사람이 참여연대의 김기식씨였다”고 밝혔다. “(김기식씨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면서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을 해서 되겠냐고 거의 겁박한다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7. 김기식의 전공은 인류학, 인류학 학사가 어떻게 금융감독원 원장을 할 수 있나?
경제학, 금융학 석, 박사 등의 전문인이 해도 어려운데 시민단체, 돈 뜯는 일만 하던 사람 연봉이 3억 6천만원, 아이러니, <중앙일보: 부메랑 된 4년 전 김기식 발언, 2018년 4월 12일>
8. 김기식만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인선할 때마다 본인들이 만든 기준에 미달, 내로남불
교회는 나온다?
- 성폭력 성폭행 미투 고보 고발 사건: 고은, 이윤택, 안희정 등 좌파 거물들의 위선과 가식이 드러남
최근 4월 10일과 11일, OO성결교회(담임 이OO 목사)에 대한 성폭행 관련 다수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 건이 보도됨. 서울경찰청은 이OO 목사를 출국금지한데 이어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목사 나이가 만 75세(43년생): 여신도에게 “나를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 “나를 피해 주려고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었다. 칼 맞아서 죽었다” 등의 증언
- 성도들의 충격: “이 목사가 평소 신도들에게 혼전 순결과 엄격한 성도덕을 실천할 것을 강조해 온만큼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 신도가 12만 명, 이런 교회가 하나님 모독(2:24)

사회적 병리 현상

미투 대상자, 김기식, 이OO 목사 등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잘 보여 준다.
특히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

이런 비리는 좌우 모두에 있다. 그런데 내로남불 위선은 좌파에서 대개 나온다. 늘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걸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명한다. 어디서 이런 것들이 오는가? 정신세계가 다르다.

사람들의 정신세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기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우파와 좌파가 갈라진다.
우파에 속한 사람: 사람에게에는 내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불완전하다. 초월적인 존재가
이끌어가는 역사의 질서를 믿는다. 신본주의, 고대로부터의 지혜를 따르려 한다. 위계 질서, 법치
좌파에 속한 사람: 인간 내부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것을 참기가 힘들다.
그래서 신랄하게 지적질을 하는데 막상 본인이 그 자리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악이 나온다.
극도의 위선자, 세상 모든 것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한 세상을 스스로 만들려고
함, 여자들 가운데,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극도의 페미니즘,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것이 인본주의, 산물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이다. 질서를 파괴하는 급진 혁명
부끄러움을 모른다, 감사를 모른다.

좌파 사상은 순진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감성적 좌파, 특징은 본인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완전한 사회를 꿈꾼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를 남 탓, 사회 탓으로 돌린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익 보수의 관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

지금까지 말한 것의 핵심: 우파와 좌파의 정신세계가 대개 그렇다는 것이다. 우파도 죄인이고 좌파도
죄인이다. 우파에도 위선자가 있고 좌파에도 있다. 우파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좌파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좌파가 되면 구원받기가 조금 힘들다. 우파가 되면 상대적으로 구원받기가 조금 쉽다.

사람 안에 문제가 없고 자기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 불가능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역겨운 존재

많은 경우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며 역겨운 존재(롬2:1)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양심이 마비되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보인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지 못함, 내가 너무 크다.

역겨운 죄인과 겸손한 죄인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9-14절)

역겨운 죄인, 바리새인 등의 종교인, 하나님 보시기에 좌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세리 같은 겸손한 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역겨운 죄인에서 탈출하여 겸손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파로 키워야 한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남 탓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쉽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 시민이 되기 쉽다.

남도 보지만 나를 먼저 본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난다(2:29), 겸손한 세리는 의롭다 판정을 받았다.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위선자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원한다.